

사 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고 소 인 정치하는엄마들
피고소인 한영익, 박해리, 김기정

고 소 장

2020. 9.

고소인의 대리인

변호사 류하경

변호사 서성민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귀중

변호사 서 성 민 법률사무소

시흥시 중심상가로 178, 202호 (정왕동, 한라프라자)
TEL : 031) 365-5777 FAX : 031) 365-5778

고 소 장

고 소 인 정치하는엄마들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4층 NGO센터 돈옴터(대방동, 서울여
성플라자)
대표자 김정덕

고소대리인 변호사 류하경, 변호사 서성민
시흥시 중심상가로 178, 202호(정왕동, 한라프라자)
전화 031-365-5777, 팩스 031-365-5778

피고소인 한영익, 박해리, 김기정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00(중앙일보)
전화 02-751-5114

고소취지

피고소인들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9조 제2항 각 위반」의 혐의로 고소하오니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서 성 민 법률사무소

시흥시 중심상가로 178, 202호 (정왕동, 한라프라자)
TEL : 031) 365-5777 FAX : 031) 365-5778

고소이유

1. 당사자의 지위

고소인은 회원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모든 엄마가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 사회, 모든 아이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복지 사회, 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비폭력 사회,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옹호하는 생태 사회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창립된 단체이고, 피고소인들은 중앙일보 주식회사 기자로서 2020. 6. 10. 보도면 제1면과 인터넷 보도(각 2020. 6. 10. 5:00, 2020. 6. 10. 09:42)를 통하여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2. 피고소인들의 범죄사실

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2020. 6. 10. 자 중앙일보 제1면에 “[전제 없는 권력, 시민단체 <상>] 후원금·일감 주고받는 그들만의 경제 공동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고소인에 대하여 “진보시민단체 기부금, 진보진영으로 재유입 정치하는엄마들 10월 연대와전진 외 57건 570만 6712” “시민단체 기부금, 진보계열 도시락·시위용품업체로 갔다” “시민단체들의 부실한 회계관리” 라고 하여 마치 고소인이 회원들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모두 진보시민단체로 유입시키거나, 고소인이 부실한 회계관리를 하는 것처럼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회원들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모두 진보시민단체로 유입시킨 사실이 없고, 고소인이 부실한 회계관리를 한 사실이 없는 바, 피고소인들은 중앙일보 제1면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변호사 서 성 민 법률사무소

시흥시 중심상가로 178, 202호 (정왕동, 한라프라자)
TEL : 031) 365-5777 FAX : 031) 365-5778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2020. 6. 10. 05:00 중앙일보 홈페이지(<https://joongang.joins.com/>)에 “ ‘정의연은 운동권 물주’ ...재벌 뺨치는 그들만의 일감 몰아주기”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고소인에 대하여 “진보시민단체 기부금, 진보진영으로 재유입 정치하는엄마들 10월 연대와전진 외 57건 570만6712” “지급처도 불투명” “더 근본적인 문제는 회계자료 부실이다” “앞서 언급된 김복동의 희망, 전태일 재단, 여성민우회 등은 월별로 대표지급처 한곳만 적시했을 뿐, 나머지 수십건은 대표지급처와 합쳐 총액만 적었다” 고 하였고, 또한, 피고소인들은 2020. 6. 10. 09:40에 위 가.항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중앙일보 홈페이지(<https://joongang.joins.com/>)에 게재하여 마치 고소인이 회원들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모두 진보시민단체로 유입시키거나, 고소인이 부실한 회계관리를 하는 것처럼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회원들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모두 진보시민단체로 유입시킨 사실이 없고, 고소인이 부실한 회계관리를 한 사실이 없는 바, 피고소인들은 중앙일보 홈페이지(<https://joongang.joins.com/>)를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을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

3. 이 사건에 관한 설명

피고소인들은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시작된 정의기억연대 논란과 관련하여 정의기억연대 이외의 시민단체에 대하여도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고소인을 포함한 당사자에게 아무런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고소인이 하고 있는 회계관리가 부실한 회계관리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변호사 서 성 민 법률사무소

시흥시 중심상가로 178, 402호 (정왕동, 한라프라자)
TEL : 031) 365-5777 FAX : 031) 365-5778

않고 이를 부실한 회계관리라고 특정하여 기사로 보도하였습니다.

가. 피고소인들의 비방의 목적

피고소인들이 위 제2항의 범죄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비방의 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의 기부금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아래 우측 그래픽과 같이 2019년 10월 기부금 전부를 진보진영으로 유입시켰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아래 좌측 신청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구분	수입	지출	잔액
2019-01월	795,000	2,320,000	64,800
2019-02월	4,377,000	1,024,000	967,000
2019-03월	1,174,000	4,880,000	3,706,000
2019-04월	748,000	3,540,000	979,000
2019-05월	887,000	1,100,000	213,000
2019-06월	1,234,000	2,300,000	866,000
2019-07월	450,000	2,100,000	1,650,000
2019-08월	1,200,000	1,500,000	300,000
2019-09월	1,500,000	1,000,000	500,000
2019-10월	5,700,712	0	5,700,712

진보시민단체 기부금, 진보진영으로 재유입

단위: 원

- 김복동의 희망
 - 3월 한국여성단체연합 200만
 - 4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500만
- 전태일 재단
 - 4월 행복나눔도시락 외 45건 3319만5537
 - 6월 명품몰 외 39건 9047만1286
 - 7월 이주노동희망센터 외 40건 4124만3292
 - 11월 부산지하철노조 외 43건 4085만3440
- 한국여성민우회
 - 1월 여성가족재단 외 83건 7535만4333
 - 6월 일상의실천 외 95건 8942만4149
 - 12월 일상의실천 외 101건 1억5100만613
- 정치하는 엄마들
 - 10월 연대와전진 외 57건 570만6712

자료: 국정청(2019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① 행정기록

(좌)신청인의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

(우)피고소인들이 보도에 활용한 그래픽

실제 고소인은 아래와 같이 피고소인들이 보도한 연대와전진에 2019년 10월 총 58건의 거래중 단 3건(374,000원)만을 거래하였습니다.

국세청 조회화면 캡처

※ 결산서식자료는 기업활동기상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8월말 이상 자료는 '실/간접 목적조치'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공(관공) 동계방조 입원상 1년이상 조회 가능)

사실자 전환 : 불분기별 목적조회

종류: 전자세금계산서 (휘수탁) 전자계산서 (휘수탁)

구분: 매출 매출
 조회기간: 2019-10-01 ~ 2019-10-31
 과세월: 1주, 1개월, 3개월
 과금자: 사업자등록번호 종사일자 상호 연의약간
 종류: 전과 전과 과금유형: 전과 과금: 과금일자 내림자순

총 합계금액: 374,000 총 과금금액: 340,000 총 세액: 34,000

※ 조회한 내용 중 다발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리받기 목록순 건별합계금액 10 확인

<input type="checkbox"/>	과세일자	발급일자	전송일자	과금제등록번호 (종사일자 연호)	상호	대표자명	종목명	합계금액	과금금액	세액
<input type="checkbox"/>	2019-10-29	2019-10-29	2019-10-30	107-06-06959	(주)전대라...	신용주	현수익9-1m-	55,000	50,000	5,000
<input type="checkbox"/>	2019-10-22	2019-10-29	2019-10-24	107-06-06959	(주)전대라...	신용주	포스터	293,200	232,000	23,200
<input type="checkbox"/>	2019-10-21	2019-10-22	2019-10-23	107-06-06959	(주)전대라...	신용주	현수익7-1m	63,000	58,000	5,000

1 6/22(1/1)

[국세청 조회화면 캡처]

결국,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의 2019년 10월 총 거래건수가 모두 진보진영으로 유입되었다고 보도한 것이나, 이는 기본적인 사실확인도 하지 않았거나,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비방의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이를 왜곡하여 보도한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회계부실과 관련하여, 피고소인들은 보도에서 고소인 외 여러 단체들의 기부금 사용처를 밝히면서 ‘더 근본적인 문제는 시민단체들의 부실한 회계관리다’ 라고 하며, 보도에 등장한 여러 단체들이 월별로 대표지급처 한 곳만 적시한 것이 ‘부실한 회계관리’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24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등 관련법령과 서식에서는 매월 기부금 지출명세를 할 경우 대표 지급처와 지출 총액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의 법에 따른 적법한 회계처리를 ‘부실한 회계관리’ 라고 한 것으로서 이는 기본적인 사실확인도 하지 않았거나,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비방이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이를 왜곡하여 보도한 것임이

변호사 서 성 민 법률사무소

시흥시 중심상가로 178, 602호 (정왕동, 한라프라자)
 TEL : 031) 365-5777 FAX : 031) 365-5778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그 밖에, 피고소인들이 보도한 고소인의 10월 내역은 1년 중 세 번째로 액수가 적은 월별내역이고, 주식회사 카카오, (주)다우기술 외 다수의 대표지급처가 있음에도 단 3건 374,000원을 지출한 연대와전진을 언급하며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은 그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피고소인들은 기본적인 사실확인을 하지 않거나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으로서 그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보도로 인한 피해사항

고소인은 100% 개인기부자(권리회원 등)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며, 기업후원이나 정부지원금은 일체 받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상근활동가 2명으로 사무국을 운영했고, 올해 1명을 충원하였으며 그럼에도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소인들의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단체에 대한 회원 등 개인기부자들의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었고, 단체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5. 결론

피고소인들은 기자로서 성실한 취재를 통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보도를 하고, 보도된 내용들이 공론의 장에서 논의가 되도록 할 의무와 사명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 서 성 민 법률사무소

시흥시 중심상가로 178, 202호 (정왕동, 한라프라자)
TEL : 031) 365-5777 FAX : 031) 365-5778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실확인을 하지도 않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시민단체들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 하나만으로 고소인이 유입하지도 않은 금융원들을 명시하고, 적법하고 타당한 회계관리를 부실한 회계관리로 명시하고 이를 유포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소인들을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

- 1. 증 제1호증의 1, 2 각 피고소인들이 보도한 기사
- 1. 증 제2호증 고소인의 연간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
- 1. 증 제3호증 전자세금계산서

2020. 9.

위 고소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류하경



변호사 서성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변호사 서성민 법률사무소

시흥시 중심상가로 178, 802호 (정왕동, 한라프라자)
TEL : 031) 365-5777 FAX : 031) 365-5778

정치

국회정당 청와대 외교 국방 북한

"정의연은 운동권 물주"...재벌 뺨치는 그들만의 일감 몰아주기

[중앙일보] 입력 2020.06.10 05:00 수정 2020.06.10 12:21

한영익 기자 박해리 기자 김가정 기자

272



정의기억연대 사무실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 후신) 논란으로 진보 진영 내부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사업비·홍보비·장학금 등 명목 진보진영 단체끼리 자금 풀앗이 민연권, 월 수천만원 지급쳐 안적어 "관행이라지만 회계 검증 불가능"

현 정부서 늘어난 국가보조금 진보 진영 유입된 뒤 출고 돌아 진중권 "운동권블록 생존력 비결"

정의연은 내부 소식지 디자인을 윤미향(전 정의연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남편 회사(수원시민신문)에 발주했고, 정의연이 관련된 '김복동 장학금'의 상당액은 진보계열 시민단체 활동가 자녀가 받게끔 했다. 재벌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처럼

"시민단체가 아니라 일감연대"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미향 의원이 대표로 있는 비영리단체인 '김복동의 희망'은 이미 관련 논란에 휩싸였다. 김복동의 희망이 국세청에 신고한 '2019년 기부금지출 명세서(국내사업)'를 보면 1억3204만원의 총 지출 가운데 상당액이 진보계열 단체나 인사들에게 지급됐다. 1억원의 장학금은 대부분 정의연 이사과 진보 시민단체 활동가 자녀들에게 지급됐고, 김복동 할머니가 지난해 1월 별세한 뒤엔 아예 '국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대학생 자녀'로 한정된 장학금을 추가로 만들었다. "김 할머니가 평소에도 쌍용차 노동자들, 사드 반대 시민 등 사회구조적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관심이 많아 그 뜻을 받든 것"이라는 게

스트리덱스 Stride x Single-Step Acn ₩9,033	홍성 스위트너 Wh olesome 요가닉 ₩12,940	유로피언 솜, LLC European Soaps ₩20,579
구매하기	구매하기	구매하기

iHerb

추천기사

단독 김영정 지시에 조급했다
폭약 퍼부는 북한 '희한한 폭파'

단독 간호조무사, 마취 환자 성추행
강남 성형외과 수술실 또 터졌다

"檢반격으로 보일수도 있다"
조국 재판장, 검찰과 또 충돌

설총 "윤석열 같은 檢총장 처음
내가 윤총장이면 벌써 그만쳤다"

"文 퇴임 연설 내가 말았으면..."
또 다시 여권 신경 끊은 진중권

통일부, 대남전단 살포 예고 저적에
北 "무슨 낯짝, 뼈라쪽탐 보복할 것"

박사 학위 받지 못해 대학서 제적
'천재소년' 송유근, 항소심도 졌다

專 부품업체 '셋다운' 막는다
정부, 협력업체에 5조원 대출

주민들은 대한항공 편 들었다
"송현동 그 땅 공원과 반대"

日 뺨박 코로나염, 위치추적도 안돼
실효성 의문 '제2 아베 마스크' 되나

불편 "북미 비핵화 핵 창조물
트럼프, 김정은에게 넘겼다"

러폭격기 미ADIZ 진입에 맞대응
美폭격기도 보란듯 러국경 비행

트럼프 "中, 경쟁국 망가뜨리려
코로나 퍼트려"...EU도 공세

코로나로 전 세계 무대 울스름
수연을 "저이 못대는 계속됩니다"

중재 / 회중 /

인생이 참.. 외롭습니다..

자세히보기

단골고객이 많은 치킨브랜드는 어..

주게우동집

단골고객이 많은 치킨브랜드는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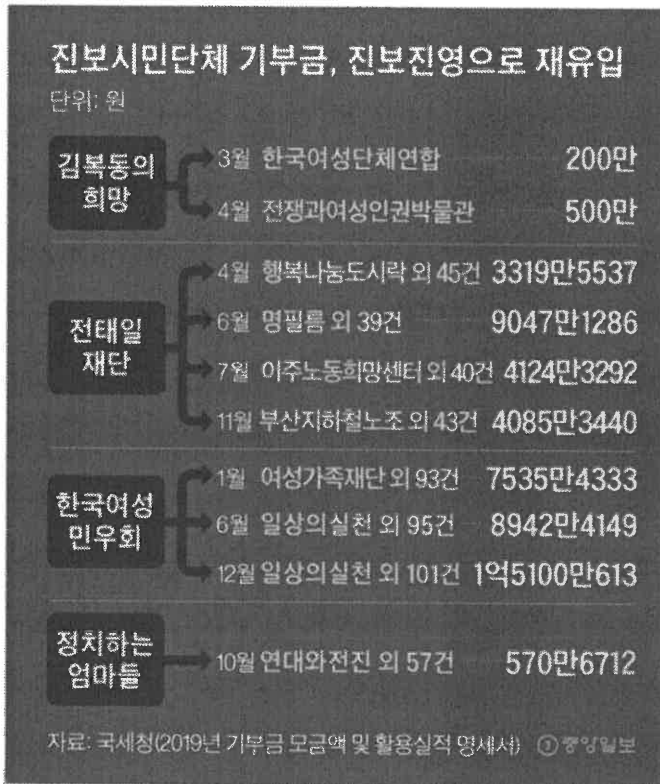
주게우동집

전국 매장 확장, 매출버는 창업 ...

정의연 해명이다. 나머지 사업비도 한국여성단체연합 연대사업(200만원),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홍보사업(500만원) 등으로 쓰였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서 "정의연이 NL 운동권의 불주 역할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운동 조직들이 이런 경제불복, 이것이 그들의 집요한 생존력의 비결일지 모른다"며 "적어도 활동가들이 생계 때문에 운동을 떠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시민단체 실상은



진보시민단체 기부금, 진보진영으로 재유입, 그래픽=박정민 기자 minn@joongang.co.kr

다른 시민단체 역시 국세청 공시를 보면 진영 내 자본 재유입의 흔적이 나타났다. '전태일재단'이 국세청에 신고한 '2019년 기부금지출 명세서'를 보면 '대표 지급처' 상당수가 같은 진영 내 단체나 업체였다. 지난해 7월에는 노동자 지원 명목으로 이주노동희망센터(외 40건) 등에 4124만원, 11월에는 전태일 추도식을 위해 부산 지하철노조(외 43건) 등에 4085만원을 지급한 거로 돼 있다. 6월 50주기 사업을 위해서는 명필름(외 39건) 등에 9047만원을 줬다고 신고했다. 4월 어울림마당 사업 역시 지역 비영리민간단체(NGO)가 운영하는 도시락업체(외 45건) 등에 3319만원을 지출했다. 해당 도시락업체는 4·15 총선 직전 '세월호참사 6주기, 기억·책임·약속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경기도 거리 곳곳에 걸고 인증샷을 SNS에 올렸다.

우회적 형태도 있었다. '한국여성민우회(민우회)'는 스튜디오 '일상의실천'에 2차례 비용을 지출했다. 6월에는 '일상의실천 외 96건 9047만원, 12월에는 '일상의실천 외 102건 1억5100만원'을 지급한 거로 돼 있다. 해당 스튜디오는 지난해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그런 배를 탔다는 이유로 죽어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세월호 참사 관련 작품을 전시했다.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부사장 '정몽준 장남' 다음달 결혼한다



홍준표, 정부 부총산 대책에 "여기가 북한인 줄 착각하나"



많이 본 기사

- 1 [단독] 김여정 지시에 급했다...폭약
- 2 불턴 "북미 비핵화는 확 창조물...트럼프,
- 3 또 여권 신경 굽는 진중권 "女 퇴임연설
- 4 "북은 핵 밀고 도발하는데"...한국 핵무장론
- 5 설총 "윤석열 같은 총 총장 처음...나라면
- 6 국회 본회의 취소...박병석 "국가비상, 여야
- 7 대구 부시장직 제안받은 典 총의락 "도망길
- 8 [미리보는 오늘] 15억원 넘으면 대총
- 9 총사덕 "비자금 수사 말라" YS 설득...97년 DJ
- 10 정청래 "경찰청장도 검찰총장과 같은

[70] 2020년 '이 총장' 사서 물어봐라 30배..
[75] 주식투자도 손실없는 '고경수의' 이 가능...

Innovation Lab

미래도시가 필요로 하는
Posted by 포스트코

Branded Content

교육지원청내에서...
50...
교육지원청내 안전조... 경부고속도로 50주년...

포토아슈



북면 쓴 멕시코 프롤레타리아들, 링 대신 거리로...

댓글 많은 기사

- 1 또 여권 신경 굽는 진중권 "女 퇴임연설
- 2 설총 "윤석열 같은 총 총장 처음...나라면
- 3 불턴 "북미 비핵화는 확 창조물...트럼프,
- 4 "사실상 주거 이동 제한" 강남 한복판 12만
- 5 국회 본회의 취소...박병석 "국가비상, 여야
- 6 "북은 핵 밀고 도발하는데"...한국 핵무장론
- 7 "트럼프는 거짓말쟁이, 북-미회담 중
- 8 "유림보단 한국" 난민 2만명 물린다는데,
- 9 [속보] 김연철 통일장관 1년2개월만에
- 10 [단독] 김여정 지시에 급했다...폭약 퍼부은

UP TO OFF 90%
아이허브 단한번복가,
최대 90%할인

중앙일보 기자들의 캠페인 공간 J팟

'정치하는 엄마들'은 시위용품 전문 판매 업체 '연대와전진'을 대표지급처로 기재했다. '연대와전진'은 금속노조 조끼, 민중가요 음반, 장기투쟁용 얼굴 가리개, 깃발, 깃대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으로 2007년 문을 열었다. 당시 진보 언론에서 "수익금 전액을 장기투쟁사업장 노조 조합원들의 생계비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라며 "장기투쟁 생계지원단"으로 소개하는 기사를 쓰기도 했다. 업체 홈페이지에는 민주노총-전농-전태일재단-이주노동희망센터 등의 배너광고가 걸려있다.

지급처도 불투명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원)

14 지출항	15 지출목적	16 지급건수	17 (18)로 지급액 (단위:불/건당)	18 금액
2019-01	대복지원 및 운영			94,333,956
2019-02	대복지원 및 운영			195,878,095
2019-03	대복지원 및 운영			74,200,067
2019-04	대복지원 및 운영			87,099,946
2019-05	대복지원 및 운영			75,473,748
2019-06	대복지원 및 운영			76,233,296
2019-07	대복지원 및 운영			143,012,811
2019-08	대복지원 및 운영			118,083,917
2019-09	대복지원 및 운영			77,895,720
2019-10	대복지원 및 운영			82,508,567
2019-11	대복지원 및 운영			87,984,809
2019-12	대복지원 및 운영			147,948,651

시민단체 '우리겨레하나되기가 국세청에 신고한 2019년 기부금 지출 명세서, 지급처 기재가 되지 않았다. [사진 국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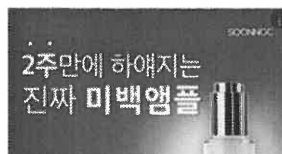
더 근본적인 문제는 회계자료 부실이다. 앞서 언급된 김복동의 희망, 전태일재단, 여성민우회 등은 월별로 대표지급처 한 곳만 적시했을 뿐, 나머지 수십건은 대표지급처와 합쳐 총액만 적었다. 상세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참여연대 출신의 김경을 회계사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재대로 된 검증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회계가 부실하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지금 비판받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엉터리 회계를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건 그야말로 웃기는 얘기다. 적어도 100만원 이상 지급한 내역은 개별적으로 지급처를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국세청 공시에는 대표지급처를 아예 한 곳도 적지 않은 곳도 많았다.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는 지난해 국세청에 매달 8000만원 ~1억4700만원가량의 기부금을 지출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지급처는 한 곳도 적지 않고, 지급목적도 '대복지원 및 운영'이라고 두루뭉술하게 썼다. 1월 지급내역을 보면 '대복지원 및 운영 1건 9433만원'이라고 신고한 식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역시 월 수천만원의 기부금을 지출했다고 쓰면서 지급처 상호는 한 건도 기재하지 않았다. 김복동의 희망에서 연대사업 명목으로 200만원 받은 것으로 돼 있는 한국여성단체연합도 마찬가지였다. 1월 지출 내역을 보면 '목적사업비 외 22건 4182만원'으로만 기재했다.

행안부 "국가정책 상충 사업 우선 지원"

문재인 정부 들어 시민단체 출신 인사의 제도권 편입과 함께 국가보조금도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곳이 정의연이다. 정의연은 2016년 16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이후 1억5000만원(2017년)→4억3000만원(2018년)→7억4708만원(2019년)으로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지원사업 수혜 단체를 선정할 때 "국가정책에 대해 보완·상충



스타기자

황진어도 울고 갈 미모, '기생충'



北, 41년전 소련 밀었다...美도 눈뜨고 당한 '황치산 전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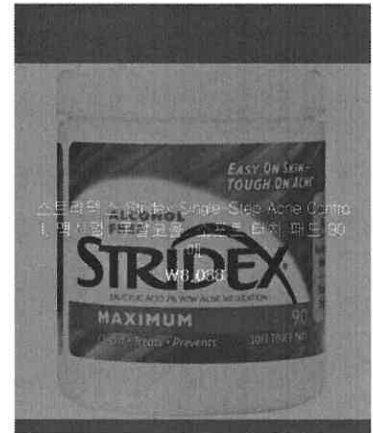
은마 '6.17 쇼크'...328기구는 새 아파트 못 받는다



친구 차 탔더니 이렇게 있던데? 나만 몰랐어?



#Herb



효과를 가지는 사업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관련 예산은 행안부에서 공고한
것만 72억원(225개 사업)으로 사업당
평균 3200만원가량이다. 이와 관련 보수 성향 단체인 '블루유니온'은
2014년부터 매년 3000만원 이상 국고 보조를 받았지만 2018년 공모에서
탈락했다. 반면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이끄는 '징검다리 교육공동체'는
'민주시민교육' 등 사업에 지난해(3900만원)와 올해(3400만원) 모두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20대 국회에서 통합당 행안위 간사를 지낸 이채익 의원은 "정권
교체 이후 보조금 지급 시민단체가 진보 성향으로 절반 이상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영익·박해리·김기정 기자 hanyi@joongang.co.kr

AD
"역류성식도염, 가슴통증" 원인 밝혀, 간단치료?
여의사다, "남성 비뇨기과 절대 가지마세요"
로또 1등 113명이나, 추첨방송 논란 3가지
30일만 일해도 "1,000만원" 버는 "정부자격증"
"남성수술" 1시간이면 가능? 비용은?
"아토피" 병원 가지마라? 원인 알고보니, "충격"



AD
힘이 좋아진 남성! 대체 뭘하나 봤더니... 충
격!
중년남성의 앞모양 고민해결! 그 충격은 세운 "리
얼맨"이 남성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걱정인 김재철(56세)씨는... 더보기▶



108 1576

온라인 구독신청 | 자연 구독신청

- #경제 #문제인 #세월호 #경제불복 #생존비결 #진보계열 시민단체 #진보 시민단체
- #운동권 경제불복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진중권 #정의연 #운동권 #보조금 #회계 #김경울
- #투명성 #진영논리 #시민단체 #진보 #보수 #정권 #교체 #김복동 #장학금 #NIL #NGO #전태일
- #부산지하철노조 #이주노동희망센터 #여성민우회 #금속노조 #조끼 #민중기요 #깃발
-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부실회계 #여성단체연합

관련 태그 기사

<p>[건제 없는 권력, 시민단체 <상> 후원금 일감]</p>	<p>진중권 "여성단체 특하던 운동, 윤미향 한패...출구 안"</p>	<p>정의연 논란 계기로 시민단체 투명성 점검하는</p>
--	---	---------------------------------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by Dobie

--	--	--

<p>스트리덱스 Stride X Single-Step Acn ₩8,008</p>	<p>Wholesome Wholesome 오가닉 ₩12,940</p>	<p>유로피언 소프, LLC European Soaps ₩20,579</p>
구매하기	구매하기	구매하기

iHerb

추천기사



단독 김영정 지시에 조금했다
폭약 퍼부는 북한 '희한한 폭파'

단독 간호조무사, 마취 환자 성추행
강남 성형외과 수술실 또 터졌다

"검각격으로 보일수도 있다"
조국 재판장, 검찰과 또 충돌

실종 "윤석열 같은 검찰장 처음
내가 윤총장이면 벌써 그만뒀다"

"文 퇴임 연설 내가 맡았으면..."
또 다시 여권 신경 끊은 진중권

통일부, 대남전단 살포 예고 지적에
北 "무슨 낯짝, 페라폭탄 보복할 것"

박사 학위 받지 못해 대학서 제적
'천재소년' 송유근, 향소심도 졌다

후 부품업체 '셋다운' 막는다
정부, 협력업체에 5조원 대출

조지프슨 대체하고...
조지프슨 대체하고...
조지프슨 대체하고...

제출물 총 논란 여가부, 개인정보 제한한 정의연 자...



고환암 양노 환관을 꼭 착용해주는 이것은?

여가부 지원사업 심사에 윤미향 참여 '셀프 심사' 의혹



나만 몰랐다, 실비가 1만원대라니

[단독] "윤미향이 할머니 양말이"...위안부 피해자 가족...



'혼란한 시기' CEO라면 반드시 취해야 할 선택

< 1 2 3 >

전체댓글 277

게시글 관리하기

[합참] 소셜 로그인으로 손쉽게 의견을 작성해보세요. 소셜댓글이란?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의견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을 계정으로 로그인 해주십시오.

0/500

최근순 추천순 반대순

boks**** 2020-06-16 20:08:53 | 신고하기
 진보의팔을쓰고 정치적선동질로 정치적이득만추구한.위선자들..더럽고.역겨운.쓰레기들..
 [답글달기]

comb**** 2020-06-11 10:13:59 | 신고하기
 국제청보고서 양식에 모든 항목을 적용 수 없게되어 있다. 문제는 국제청 양식에 문제가 있는거지 정보단체의 회계에 문제가 있는것처럼 보도하는 중앙일보의 저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김경을 회계사는 기부단체를 회계에 대해서 잘알지못하는 전문분야가 다른 사람이라고 들었다. 중앙일보는 사과하고 정정보도를 내어라
 [답글달기]

hope**** 2020-06-16 14:30:40 | 신고하기
 별도 양식 첨부해서 상세히 보일수 있다

babi**** 2020-06-13 18:43:39 | 신고하기
 믿어야 방구야, 단지 항목을 국제청에 적지 않아서 문제라는 게 아니잖아, 적을 수 없는 문은 없어도 되고 개인이 어디다 썼는지 못 봐어도 됬?

rudi**** 2020-06-11 16:10:19 | 신고하기
 회계에 문제가 없어요? 정말그렇게 생각하세요?

bhak**** 2020-06-11 09:26:04 | 신고하기
 더러운 것들.
 [답글달기]

jjh1**** 2020-06-11 07:55:51 | 신고하기
 원래 운동권들이 다 옹란 타락 비도덕적이지 알량한 가짜정의 외치는것도 명승심리인본 지금 하는것들이 무슨 도덕과 신과 정의가 있나 자식 문종 해먹은것은 용서되고 자식 미국 유학 역대로 보내는것 다 용서되지만 제발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정승이 처참은 하지 마라
 [답글달기]

dska**** 2020-06-11 07:55:10 | 신고하기
 건당 10만원에서부터 70~80만원이 대부분인데 아걸 일감 몰아주거라고 지g형하냐? 예고, 한심한 놈들. 이게 언론이나, 지라시냐?
 [답글달기]

jmj7**** 2020-06-10 22:54:44 | 신고하기
 박근혜 k스포츠재단으로 돈해먹으려고 한것과 차이가 없네 소수가 먹나 때거리로 먹나정도 차이뿐? 민권원 임철 깨끗한친 언론 필터링 해대더니 그러면 단체기부 회계는 엄청 무능력에 구리네 개심양이다 뭘들은게가 뭘들은게 지적칭하는거 때려치라 비계 술한 단체들이 노그가 때거리 힘받고 대한민국 해먹을라고 하는거 박근혜때랑 뭐가 다르냐? 오히려 더찌푸나는 이윤화는 쟁까?
 [답글달기]

dska**** 2020-06-11 07:55:29 | 신고하기

단독! 내민영구 인 끝자나 "송헌동 그 땅 공원과 반대"



단독! 북극 코로나염, 위치추적도 안돼 실효성 의문 '제2 아베 마스크' 되나

불편 "북미 비핵화 확 창조물 트럼프, 김정운에게 낫았다"



러폭격기 美ADIZ 진입에 맞대응 美폭격기도 보란듯 러국경 비행



트럼프 "중, 정경국 망가뜨리려 코로나 퍼뜨려"...EU도 공세



코로나로 전 세계 무대 울스름 손염을 "저의 무대는 계속됩니다"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부사장 '정몽준 장남' 다음달 결혼한다



홍준표, 정부 부총산 대책에 "여기가 북한인 줄 착각하나"



많이 본 기사

- 1 [단독] 김여정 지사에 급했다...폭악
- 2 불편 "북미 비핵화는 총 창조물"...트럼프,
- 3 또 어권 신경 끊는 진중권 "文 퇴임연설
- 4 "북은 핵 말고 도발하는데"...한국 핵무장론
- 5 설훈 "윤석열 같은 총 총장 처음...나라면
- 6 국회 본회의 취소...박병석 "국가비상, 여야
- 7 대구 부시장의 제안받은 총 총의력 "도망길
- 8 [미리보는 오늘] 15억원 넘으면 대출
- 9 홍시덕 "비자급 수사 말라" YS 실속...97년 DJ
- 10 정청래 "경찰청장도 검찰총장과 같은

[AD] 2020년 '이 총독' 사서 물어봐라 30배...
 [시] 주식투자도 손실없는 '고정수익'이 가능...

Innovation Lab

미래도시가 필요로 하는
 Posted by 포스트

Branded Content

고위직별경로 안전조...
 50...
 고위직별경로 안전조...
 정부고속도로 50주년...

포토이슈



북면 쓴 멕시코 프로레슬러들, 링 대신 거리로...

댓글 많은 기사

- 1 또 어권 신경 끊는 진중권 "文 퇴임연설
- 2 설훈 "윤석열 같은 총 총장 처음...나라면
- 3 불편 "북미 비핵화는 총 창조물"...트럼프,
- 4 "사실상 주거 이동 제한" 강남 한복판 12만
- 5 국회 본회의 취소...박병석 "국가비상, 여야
- 6 "북은 핵 말고 도발하는데"...한국 핵무장론
- 7 "트럼프는 거짓말쟁이, 북 미회담 중
- 8 "유림보단 한국" 난민 2만명 물린다는데,
- 9 [속보] 김연철 총임정관 1년2개월만에
- 10 [단독] 김여정 지사에 급했다...폭악 퍼부은

차이가 많습디? 그때 재벌로부터 수십억 씩 거둬 전체가 수백억이었잖아? 이걸 뭐 건당 10만원에서 70~80만원 씩 주고 일시킨 건데 이게 일값 몰아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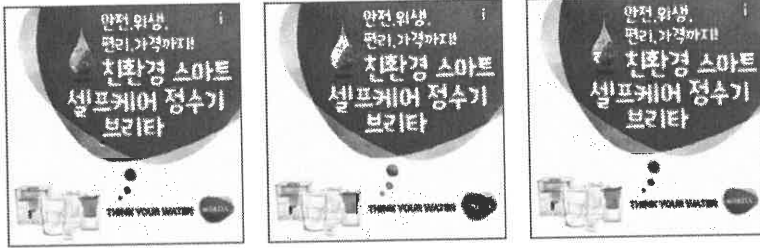
더보기 >

90%
UP TO OFF

아이허브 단한번 특가,
최대 90%할인

중앙일보 기자들의 팟캐스트 공개 7판

SHOPPING & LIFE



오피니언

사실점검
만경
디지털발전
이달 중점

정치

국외정당
청와대
외교
국방
북한

경제

경제정책
산업
금융증권
부동산
과학미래
글로벌경제
고용노동

사회

경찰 법원
교육
사건사고
복지
교통
환경
지역
건강

국제

미국
중국
일본
유럽
기타
로씨영도

문화

책
공연
미술
클래식
가요
방송
영화

스포츠

야구
해외야구
축구
해외축구
농구/배구

라이프 스타일

패션
맛
럭셔리
뷰티
러빙

여행레저

국내여행
해외여행
여행뉴스
Week&

포토·영상

포토
영상

피플

사광망
인사
부음

스페셜

중앙SUNDAY
디지털스페셜
특별무지개
덕오래
먼지일지
복지보통
Mr.멀리터러
맛

서비스

뉴스레터
이슈페이지
트렌드 뉴스
기자
인물정보
전자판

독자 서비스

중앙멤버십
구독신청
재보
보도자료
고객센터

NGK&N AIR

SAMSUNG

하나투어리스트

축하합니다

로또 당첨 예상 번호가 도착했어요.

번호 확인하기

중앙그룹

중앙일보 | 고객센터 | 유통경영 | 광고 안내 | 제휴문의 | 견학신청 | 회원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 | 청소년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00 | 등록번호 서울 아 01013 | 등록일자: 2009.11.2 | 발행인: 홍정도 | 편집인: 오병성

JoongAng Ilbo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콘텐츠 문의)

Copyright by JoongAng Ilbo Co., Ltd. All Rights Reserved

정치

국회정당 청와대 외교 국방 북한

[견제 없는 권력, 시민단체 <상>] 후원금·일감 주고받는 그들만의 경제 공동체

[중앙일보] 입력 2020.06.10 09:42 수정 2020.06.10 10:30 | 종합 1면 지면보기

가 가

한영의 기자 박해리 기자 김가연 기자



자세히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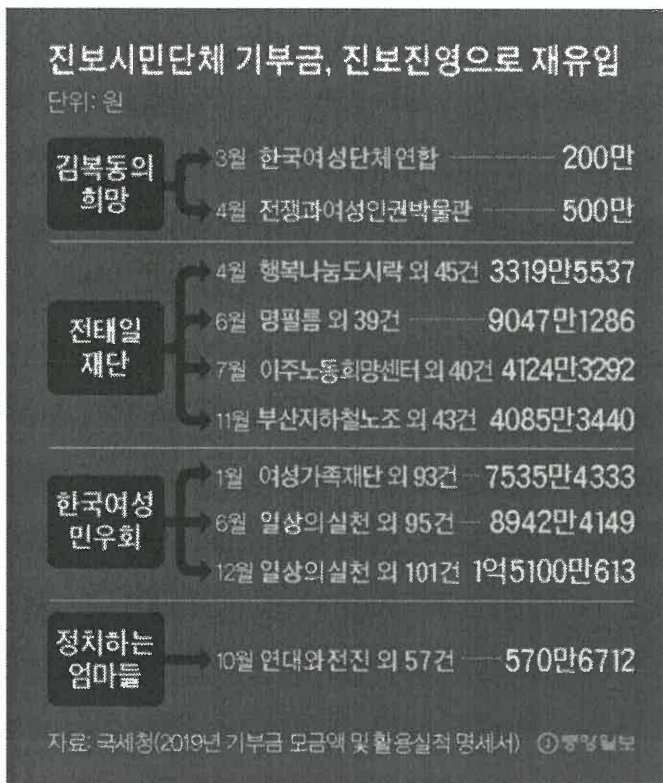
내가 원하는 건축.. 3D투시도로 확인



신장질환 센터에서 제시하는 신..



단기간 감량 도와 줄 다이어트 유..



진보시민단체 기부금, 진보진영으로 재유입. 그래픽=박정민 기자 minn@joongang.co.kr

지난해 7월 '전태일재단'은 노동자 지원 명목으로 이주노동희망센터(외 40건) 등에 4124만원을 지급했다. 11월에는 전태일 추도식을 위해 부산 지하철노조(외 43건) 등에 4085만원이 쓰였다. 재단이 국세청에 신고한 '2019년 기부금지출 명세서' 내용이다. 눈에 띄는 것은 '대표 지급처'로 신고된 곳의 상당수가 이른바 진보진영 단체나 업체라는 점이다.

사업비·홍보비·장학금 등 명목 진보진영 단체끼리 자금 풀앗이 민연련, 월 수천만원 지급처 안적어 "관행이라지만 회계 검증 불가능"

현 정부서 늘어난 국가보조금

6월 50주기 사업을 위해 명필름(외 39건) 등에 9047만원을, 4월 어울림한마당 사업에서는 지역 비영리민간단체(NGO)가 운영하는 도시락 업체(외 45건) 등에 3319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추천기사



단독 김여정 지시에 조금했다 폭약 퍼부는 북한 '희한한 폭파'

단독 간호조우사, 마취 환자 성추행 강남 성형외과 수술실 또 터졌다

"검반격으로 보일수도 있다" 조국 재판장, 검찰과 또 충돌

설훈 "윤석열 같은 총장장 처음 내가 윤총장이면 벌써 그만뒀다"

"文 퇴임 연설 내가 말았으면..." 또 다시 여권 신경 끊은 진중권

통일부, 대남전단 삼포 예고 지적에 北 "무슨 낱짝, 배라폭탄 보복할 것"

박사 학위 받지 못해 대학서 재적 '전재소년' 송유근, 향소심도 줬다

후 부잡업체 '셋다운' 막는다 정부, 협력업체에 5조원 대물

주민들은 대한항공 편 들었다 "송연동 그 땅 공원과 반대"

日 뒷북 코로나법, 위치추적도 안돼 실효성 의문 '제2 아베 마스크' 되나

불탄 "복미 비핵화 재 창조물 트럼프, 김정은에게 낚였다"

러폭격기 美ADIZ 진입에 맞대응 美폭격기도 보란듯 러국경 비행

트럼프 "中, 경쟁국 망가뜨리려 코로나 퍼뜨려"...EU도 공세

증제 / 후증 2

**진보 진영 유입된 뒤 들고 돌아
진중권 "운동권블록 생존력 비결"**

신고했다. 해당 도시락 업체는 415
총선 직전 '세월호참사 6주기, 기억·
책임' 약속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경기도 거리 곳곳에 걸고 인증샷을 SNS에 올렸다. 명필름은
심재명 대표이사가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등 진보 색채가
강한 영화사다.

언뜻 당연해 보일 수도 있는 '진영 편중 거래'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 후신) 논란으로 차가운 여론에 직면했다.

정의연은 내부 소식지 디자인을 윤미향(전 정의연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남편 회사(수원시민신문)에 발주했고, 정의연이 관련된 '김복동
장학금'의 상당액은 진보계열 시민단체 활동가 자녀가 받게 했다. 정의연의
회계 부정 의혹과 맞물려 진보진영 내부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처럼 같은 성향의
시민단체가 '일감 연대'를 이루며 '경제 공동체'의 몸집을 키웠다는 비판이다.

윤미향 의원이 대표로 있는 비영리단체인 '김복동의 희망'은 이미 관련
논란에 휩싸였다. 김복동의 희망이 국세청에 신고한 '2019년 기부금지출
명세서(국내사업)'를 보면 1억3204만원의 총지출 가운데 상당액이 진보계열
단체나 인사들에게 지급됐다. 1억원의 장학금은 대부분 정의연 이사과 진보
시민단체 활동가 자녀들에게 지급됐고, 김복동 할머니가 지난해 1월 별세한
뒤엔 아예 '국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대학생 자녀'로 한정한 장학금을
추가로 만들었다. "김 할머니가 평소에도 상용차 노동자들, 사드 반대 시민 등
사회구조적 피해를 본 이들에게 관심이 많아 그 뜻을 받든 것"이라는 계
정의연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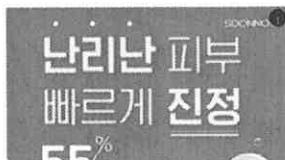
시민단체 기부금, 진보계열 도시락·시위용품업체로 갔다

나머지 사업비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연대사업(200만원),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홍보사업(500만원) 등에 쓰였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서 "정의연이 NL 운동권의 물주 역할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운동조직들이 이룬 경제블록, 이것이 그들의 집요한 생존력의
비결일지 모른다"고 주장한다. 시민단체가 국세청에 공시한 자료를 보면
진영 내 '자본 재유입'의 패턴이 나타난다. '한국여성민우회'(민우회)는
스튜디오 '일상의실천'에 두 차례 비용을 지출했다. 6월에는 '일상의실천 외
96건 9047만원', 지난해 12월에는 '일상의실천 외 102건 1억5100만원'을
지급한 걸로 돼 있다. 해당 스튜디오는 지난해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그런 배를 탔다는 이유로 죽어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세월호 참사 관련
작품을 전시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시위용품 전문판매업체 '연대와전진'을 대표지급처로
기재했다. '연대와전진'은 금속노조 조끼, 민중가요 음반, 장기투쟁용 얼굴
가리개, 깃발, 깃대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으로 2007년 문을 열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시민단체들의
부실한 회계관리다. 앞서 언급된
김복동의 희망, 전태일재단, 여성민우회
등은 월별로 대표지급처 한 곳만



코로나로 전 세계 무대 예술들
손절을 "저의 무대는 계속됩니다"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부사장
'정몽준 장남' 다음달 결혼한다



홍준표, 정부 부동산 대책에
"여기가 북한인 줄 착각하나"



많이 본 기사

- 1 [단독] 김여정 지시에 급했다...쪽악
- 2 불턴 "북미 비핵화는 확 창조음...트럼프,
- 3 또 여권 신경 끊는 진중권 "文 퇴임연설
- 4 "북은 핵 믿고 도발하는데"...한국 핵무장론
- 5 설훈 "윤석열 같은 핵 총장 처음...나라면
- 6 국회 본회의 취소...박병석 "국가비상, 여야
- 7 대구 부시장직 제안받은 典 총리락 "도망길
- 8 [미리보는 오늘] 15억 원 넘으면 대충
- 9 홍사덕 "비자금 수사 말라" YS 설득...97년 DJ
- 10 정청래 "경찰청장도 검찰총장과 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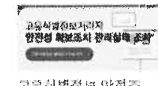
[AF] 2020년 '이 총독' 사서 물어봐라 30배...
[AD] 로도 당칠때면만 앞면 당칠책을 2배 줄...

Innovation Lab



**333 양자법보다
중요한**
Posted by 김화익

Branded Content



고유식별정보 안전조...
경부고속도로 50주년...

포토이슈



북면 쓴 멕시코 프롤레타리아들, 링 대신
거리로...

댓글 많은 기사

- 1 또 여권 신경 끊는 진중권 "文 퇴임연설
- 2 설훈 "윤석열 같은 핵 총장 처음...나라면
- 3 불턴 "북미 비핵화는 확 창조음...트럼프,
- 4 "사실상 주거 이용 제한" 강남 한복판 12만
- 5 국회 본회의 취소...박병석 "국가비상, 여야
- 6 "북은 핵 믿고 도발하는데"...한국 핵무장론
- 7 "트럼프는 거짓말쟁이, 북미회담 중
- 8 "유럽보단 한국" 난민 2만명 풀린다는데,
- 9 [속보] 김연철 통일장관 1년2개월만에
- 10 [단독] 김여정 지시에 급했다...쪽악 퍼부은



적시했을 뿐, 나머지 수십 건은 대표지급처와 합쳐 총액만 적었다. 참여연대 출신의 김경을 회계사는 "제대로 된 검증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회계가 부실하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지금 비판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엉터리 회계를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건 그야말로 웃기는 얘기다. 적어도 100만원 이상 지급한 내역은 개별적으로 지급처를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공시에는 대표지급처를 하나도 적지 않은 곳도 많았다.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는 지난해 국세청에 매달 8000만 ~1억4700만원가량의 기부금을 지출했다고 신고했다. 1월 지급내역을 보면 '대복지원 및 운영 1건 9433만원'이라고 두루뭉술하게 신고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역시 월 수천만원의 기부금을 지출했다고 쓰면서 지급처 상호는 한 건도 기재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들어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국가보조금은 증가했다. 정의연의 경우 2016년 16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이후 1억5000만원(2017년)→4억3000만원(2018년)→7억4708만원(2019년)으로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지원사업 수혜 단체를 선정할 때 "국가정책에 대해 보완상승 효과를 가지는 사업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영익·박해리·김기정 기자 hanyi@joongang.co.kr

AD
"외국산식도염, 가슴통증, 원인 밝혀, 간단치료기
폐렴, 폐암환자 98% 완화된 슬관 밝혀져, 충격!
'불안증' 잠드는 데 30분? 방치하면 진짜 큰일나.
로또 이번호 1등번호 꼭 나온다"3,17,24."
"남성수술" 1시간이면 가능? 비용은?
43억 로또당첨된 아내, 남편 재워놓고 매일밤...



AD
힘이 좋아진 남성! 대체 뭘하나 봤더니.. 충격!
중년남성의 알못할 고민해결! 그 품격을 세운 '리얼맨'이 남성을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직장인 김재철(56세)씨는... 더보기▶

여행지, 예쁜 우리말을 찾아주세요!
이벤트 참여하고 휘닉스파크 영화관 가지



온라인 구독신청 | 지면 구독신청

▶ #건제 없는 권력 시민단체 <상> #공동체 #후원금 #진보계열 시민단체 #기부금지출 명세서 #경제 공동체

관련 태그 기사



중앙일보 기자들의 핫게스트 공간 J팟

스타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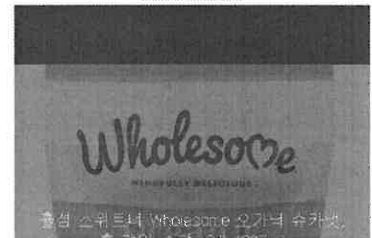
- 황진아도 좋고 갈 미모, '기생꽃'
- 北, 41년전 소련 달았다..美도 눈뜨고 당한 '빨치산 전술'
- 은마 '6.17 쇼크'...328가구는 새 아파트 못 받는다



나만 알고 싶던 '몰라서 못산' 아이템 모음



iHerb



트럼프 "中, 경제국 망가뜨리려 코로나 퍼트려"...EU도 공세

코로나로 전 세계 무대 올스톱 손업을 "저의 무대는 계속됩니다"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부사장 '정몽준 장남' 다음달 결혼한다

홍준표, 정부 부흥산 대책에 "여기가 북한인 줄 착각하나"

많이 본 기사

- 1 [단독] 김여정 지시에 급했다...폭약
- 2 불탄 "북미 비핵화는 핵 창조물"...트럼프,
- 3 또 여권 신경 끊는 진중권 "文 퇴임연설
- 4 "북은 핵 믿고 도발하는데"...한국 핵무장론
- 5 실존 "윤석열 같은 핵 총장 처음...나라면
- 6 국회 본회의 취소...박병석 "국가비상, 여야
- 7 대구 부시장직 제안받은 吳 홍의락 "도망길
- 8 [미리보는 오늘] 15억원 넘으면 대출
- 9 홍사덕 "비자금 수사 말리" YS 설득...97년 DJ
- 10 경청래 "경찰청장도 검찰총장과 같은

[AD] 2020년 '이 풍목' 사서 물어봐라 30배..
[AD] 로또 당첨매달만 앞면 당첨확률 2배 올...

Innovation Lab

333 양치법보다 중요한...
Dentist For You

"정의연, 후원금 모금 사용
멈춰달라"...시민단체

(중앙시평) 어용 권력이 된
시민단체

정부 보조금으로 직원
월급?美시민단체는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by Dable



[단독] "윤미향이 할머니
양딸이"...위안부 피해자 가족...



검찰, 윤미향 의원 배임 의혹
'안성 숲터' 관련 건축업자...



[이종주의 이코노미스] 월
32만원 지급해도 기존...



고혈압 당뇨 혈관을 좌악
뚫어주는 이것은?



나만 몰랐다, 실버가
1만원대라니



'혼란한 시기' CEO라면 반드시
취해야 할 선택

< 1 2 3 >

전체댓글 0

게시판 관리기

3 4 5 6 7 8 9 10 [알림] 소셜 로그인으로 손쉽게 의견을 작성해보세요. 소셜댓글어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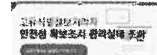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의견 작성을 위해 원하시는 계정으로 로그인 해주십시오

0/500

SHOPPING & LIFE



Branded Content



고유식별정보 안건호...

경부고속도로 50주년...

포토이슈



북면 쓴 멕시코 프로레슬러들, 링 대신
거리로...

댓글 많은 기사

- 1 또 어떤 신권 굶는 진중권 "文 퇴임연설
- 2 설문 "윤석열 같은 檢 총장 처음...나라면
- 3 별턴 "북미 비핵화는 韓 창조물...트럼프,
- 4 "사실상 주가 이동 제한" 강남 한복판 12만
- 5 국회 본회의 취소...박병석 "국기비상, 어야
- 6 "북은 핵 말고 도발하는데"...한국 핵무장론'
- 7 "트럼프는 거짓말쟁이, 북·미회담 중
- 8 "유럽보단 한국" 난민 2만명 몰린다는데,
- 9 [속보] 김연철 통일장관 1년2개월만에
- 10 [단독] 김여정 지시에 급했다...북약 퍼부은

90%
UP TO OFF

아이허브 단한반복가,
최대 90%할인

중앙일보 기자들의 핫캐스트 공간 J팟

스타기자

황진이도 울고갈 미모, '기생꽃'



오피니언

- 사설칼럼
- 만평
- 디지털생전
- e칼럼
- e칼럼 중심

정치

- 국회정당
- 청와대
- 외교
- 국방
- 북한

경제

- 경제정책
- 산업
- 금융증권
- 부동산
- 과학미래
- 글로벌경제
- 고용노동

사회

- 검찰·법원
- 교육
- 사건사고
- 복지
- 교통
- 환경
- 지역
- 건강

국제

- 미국
- 중국
- 일본
- 유럽
- 기타
- 토픽월드

문화

- 책
- 공연
- 미술
- 클래식
- 가요
- 방송
- 영화

스포츠

- 야구
- 해외야구
- 축구
- 해외축구
- 농구/배구

라이프 스타일

- 패션
- 맛
- 트셔리
- 뷰티

여행레저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여행뉴스
- Week&

포토·영상

- 포토
- 영상

파퐁

- 사랑방
- 인사
- 부음

스페셜

- 중앙SUNDAY
- 디지털스페셜
- 총일부지개
- 더,오래

서비스

- 뉴스레터
- 이슈페이지
- 브랜드 뉴스
- 기자

독자 서비스

- 중앙멤버십
- 구독신청
- 제보
- 보도자료



중앙그룹

중앙일보 | 고객센터 | 윤리경영 | 광고 안내 | 제휴문의 | 건축신청 | 회원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 | 청소년 보호정책 | 고충처리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00 | 등록번호 서울 아 01013 | 등록일자: 2009.11.2 | 발행인: 홍정도 | 편집인: 오병상 | 전화: 02-751-5114 | 사이트맵

JoongAng Ilbo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콘텐츠 문의)

Copyright by JoongAng Ilbo Co., Ltd. All Rights Reserved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앞쪽)

1. 기본사항

1 법인명	정치하는엄마들	2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 ** - *****
3 대표자 성명	김정덕, 백은희	4 기부단체 구분	민법상비영리법인
5 전자우편주소	act@politicalmamas.kr	6 사업연도	2019-12
7 전화번호	02-2267-6233	8 기부금단체 지정일	2019-12-31
9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4층(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2. 기부금의 수입.지출 명세

(단위 : 원)

10 월별	11 수입	12 지출	13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0	2019년08월	5,892,040	5,434,814	4,242,614
2019년01월	7,725,220	7,331,551	393,669	2019년09월	6,337,360	8,138,371	2,441,603
2019년02월	6,272,600	5,804,442	861,827	2019년10월	7,119,800	5,706,712	3,854,691
2019년03월	11,373,840	8,450,796	3,784,871	2019년11월	5,630,790	6,055,565	3,429,916
2019년04월	7,436,020	9,591,625	1,629,266	2019년12월	11,183,900	14,613,816	0
2019년05월	7,981,260	6,734,373	2,876,153	합계	90,402,435	90,402,435	
2019년06월	6,014,040	8,263,776	626,417	차기이월	-	-	0
2019년07월	7,435,565	4,276,594	3,785,388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 원)

14 지출월	15 지급목적	16 지급건수	17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18 금액
2019-01	사무실운영비 외	41	그린카노 외	7,331,551
2019-02	유보육정상화사업비 외	47	미래공간 외	5,804,442
2019-03	한국맥도날드규탄사업비 외	78	주식회사 센트럴에스 외	8,450,796
2019-04	스쿨미투지원사업	74	법무법인 훈민 외	9,591,625
2019-05	어린이집급간식비증액사업비 외	50	킨코스코리아 (주) 외	6,734,373
2019-06	사무실운영비 외	57	주식회사 카카오 외	8,263,776
2019-07	강연주최:엘리트정치를넘어서 외	67	만복림 외	4,276,594
2019-08	유보육정상화사업비 외	40	(주) 파피루스 외	5,434,814
2019-09	어린이집급간식비증액사업비 외	54	종합회사법인한우총원주식회사 외	8,138,371
2019-10	어린이생명안전법안사업비 외	58	(주)연대와전진 외	5,706,712
2019-11	사무실운영비 외	41	(주)다우기술 외	6,055,565
2019-12	캠페인 외	108	(재)CBS 외	14,613,816
19 연도별	20 지급목적	21 수혜인원	22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23 금액
2019	유·보육정상화사업	80	미래공간 외	16,751,987
	한국맥도날드규탄사업	50	(주)연대와전진 외	8,647,881
	스쿨미투사업	85	법무법인 위민 외	16,626,473
	어린이집급간식비증액사업	70	주식회사 카카오 외	12,255,870
	악플법률대응사업	10	변호사서성민법률사무소 외	750,000
	어린이생명안전법안사업	105	킨코스코리아 (주) 외	19,507,146
	연대사업	11	(주)다우기술 외	266,828
	강연주최	8	만복림 외	205,700
사무국운영	30	그린카노 외	15,390,550	
합계		449		90,402,435

증제 3 호증

4.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24 지출월	25 국가명	26 지급목적	27 지급건수	28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30 연도별	31 국가명	32 지급목적	33 수혜인원	34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합계			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9항 또는 제36조의2제8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제출합니다.

202

제출인:

김정덕, 백윤희

(단체

주 세 영
자 귀하

210mm×297mm [백상지 80g/㎡]

(단위 : 원)

29 금액

35 금액

0

0년 06월 11일

의 직인) [인]

또는 중질지 80g/㎡]

고 소 (고 발) 대 리 위 임 장

사 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고 소(고발)인 정치하는엄마들
피고소(고발)인 한영익, 박해리, 김기정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고발)인은

주소 경기도 시흥시 중심상가로 178, 202호 (정왕동, 한라프라자)
(전화 031-365-5777, 팩스 031-365-5778, 이메일 bonafide849@gmail.com)

변호사 서성민, 변호사 류하경 에게 고소(고발)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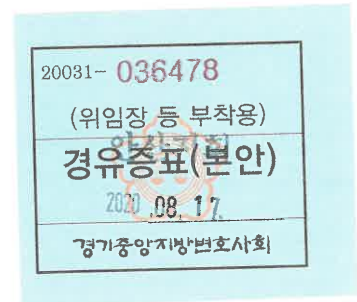
- (1) 고소 및 고소장 제출 (2) 관계기관(경찰 및 검찰 등)의 출석
- (3) 각종 조사참여 및 진술 (4) 증거등 관련자료 제출
- (5) 진술서 및 탄원서 제출 (6) 각종 서류의 정정, 보정, 수정 등
- (7) 고소취하 및 취하서 제출 (8) 항고 및 항고장 제출 (9) 재정신청
- (10) 기타 관련업무 일체

위 고소(고발)대리를 위임합니다.

2020년 9월 일

위임인 정치하는엄마들 대표자 김정덕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4층 NGO센터 돔옴터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변호사 서 성 민 법률사무소

시흥시 중심상가로 178, 202호 (정왕동, 한라프라자)
TEL : 031) 365-5777 FAX : 031) 365-5778